

# 인천시 상업공간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실태

석종수 / 도시정보센터 센터장  
조형진 / 도시정보센터 전임연구원  
홍승연 / 도시정보센터 전임연구원  
유소현 / 도시정보센터 전임연구원

## 배경과 목적

-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 인천시 주요 상업공간 정보와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인천시 지역 상권의 변화와 주요 상업공간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실태를 분석(5월 31일 기준)
- 주요 상업공간은 주요 지역 상권 주변 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지하도 상가 주변 지역, 백화점 주변지역, 복합쇼핑몰 주변지역, 대형 마트 주변지역,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지역으로 구분

## 정책제안

-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지하도 상가 활성화 정책 필요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이기와 맞물려 지원금의 사용이 매우 저조
  - 지하도 상가의 환경 개선과 방역체계 마련 필요
  - 지하도 상가 활성화 계획 수립 필요
- 공간 빅데이터의 상시 수집·활용·공유체계 마련
  - 공간 빅데이터의 시각화 및 분석은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에 용이
  -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상시 수집체계 마련 필요

#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요

● 인천에서 신청·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8월 5일까지 약 121만 건, 7,978억 원임<sup>1)</sup>

[표 1]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구 수

건수 계	현금	신용·체크카드	상품권	선불카드	금액 (백만 원)
1,214,116	144,206	808,808	261,102	-	797,775

자료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등 신청 현황(8월 5일 기준, 내부자료)

● 인천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빠름<sup>2)</sup>

- 인천시에서 카드로 지급된 지원금을 약 5,300억 원으로 추정  
(신청·지급된 지원금 총액 7,905억 원 × 신용·체크카드 지급 가구 수 비율 67.05%)
- 지원금의 70.61%가 사용됨(전국 평균 59.3%)<sup>3)</sup>

A. 전체 지급금액	= 7,905억 원	(5월 31일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자료)
B. 카드 지급금액	≒ 5,300억 원	(A × 67.05%)
C. 재난지원금 사용액	= 3,803억 원	(B × 70.61%)

1) 2020년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약 120만 건, 7,905억 원을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 대부분(98.9%)은 5월 31일 이전에 신청하고 받음.  
 2)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 평가와 기준을 같게 하려면 5월 31일을 기준으로 추계함.  
 3) 전 국민에게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지원금은 5월 31일까지 약 59.3% 정도 사용됨(행정안전부, 2020.6.11., 보도자료), 5월 27일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은 인천이 98.5%로 전국에서 가장 빠름(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로 93.3%임)

## 2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공간분포

### ●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주요 상업공간이 입지한 지역에서 주로 사용

- 인천시 도시지역의 지원금 사용 공간분포는 주요 상업공간을 중심으로 핫스팟을 형성<sup>4)</sup>
- 영종도는 주거지역과 씨사이드파크 일대를 중심으로 핫스팟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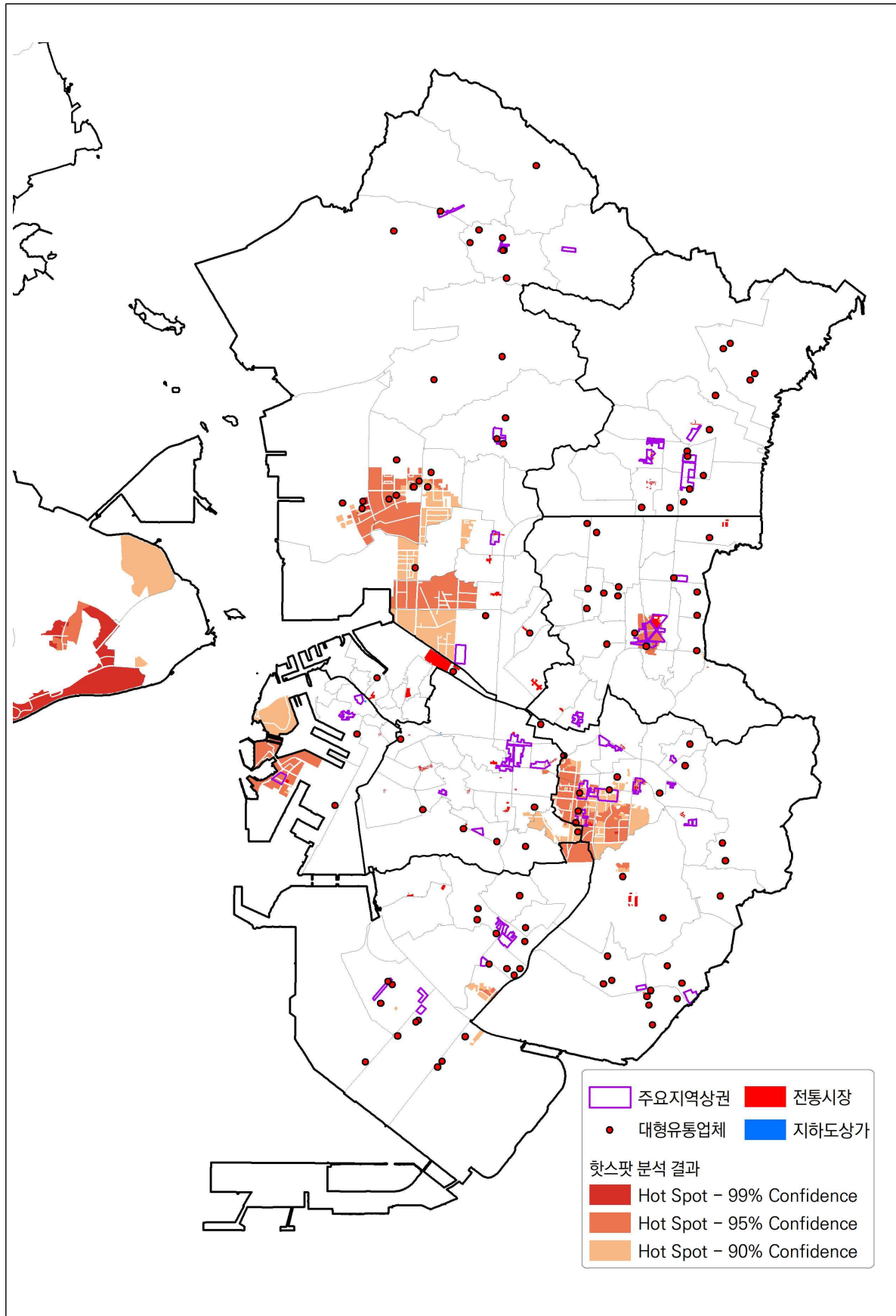
[표 2]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핫스팟 지역

행정구	행정동	핫스팟 지역 내 주요 상업공간	
중구	연안동, 북성동, 영종동	지역 상권	연안부두
		전통시장	종합어시장
동구	송현3동 및 송림4동 일부지역	지역 상권	송림공구상가,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대형유통업체	이마트 트레이더스
미추홀구	주안8동, 관교동	대형유통업체	롯데마트
연수구	선학동, 동춘2동 송도2동, 송도3동	지역 상권	동춘2동, 송도신도시①②
		대형유통업체	NC백화점, 현대아울렛, 홈플러스
남동구	구월1~4동, 간석1동, 남촌도림동 일부지역	지역 상권	구월동 로데오거리, 인천시청①②, 구월4동
		전통시장	모래내시장, 구월시장, 구월식자재도매시장,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부평구	부평1, 4, 5, 6동, 부개1동 및 일신동 일부지역	지역 상권	부평시장, 부평역①③, 부평해물탕거리
		전통시장	부일종합시장, 부평대아지하도 상가, 부평역사쇼핑몰, 부평자유시장, 진흥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 부평강시장
		대형유통업체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오렌지팩토리아울렛
계양구	-	-	-
서구	석남2동, 가좌1동, 신현원창동 일부지역, 청라1~3동	지역 상권	엠파크타워
		전통시장	거북시장, 신거북시장
		대형유통업체	롯데마트, 모다아울렛, 홈플러스

※ 계양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핫스팟 지역은 도출되지 않았으나, 계산4동과 작전서운동에서 지원금 사용이 많았고 이와 관련한 상업공간은 지역 상권(계산4동①②, 작전서운동)과 대형유통업체(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임

4) 상업공간은 주요 지역 상권, 전통시장, 지하도 상가,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구분함  
 - 주요 지역 상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설정한 지역의 주요 상권  
 - 복합 쇼핑몰: 다양한 소매업체를 모아 놓은 대형 상업시설  
 -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유통업체가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소매점, 슈퍼 슈퍼마켓(SSM)이라 불림

[그림 1] 지원금 사용 핫스팟 분석 결과와 주요 상업공간의 입지분포



### 3 상업공간별 카드 매출액

● 2020년 5월 상업공간별 평균 카드 매출액은 2019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 5% 감소<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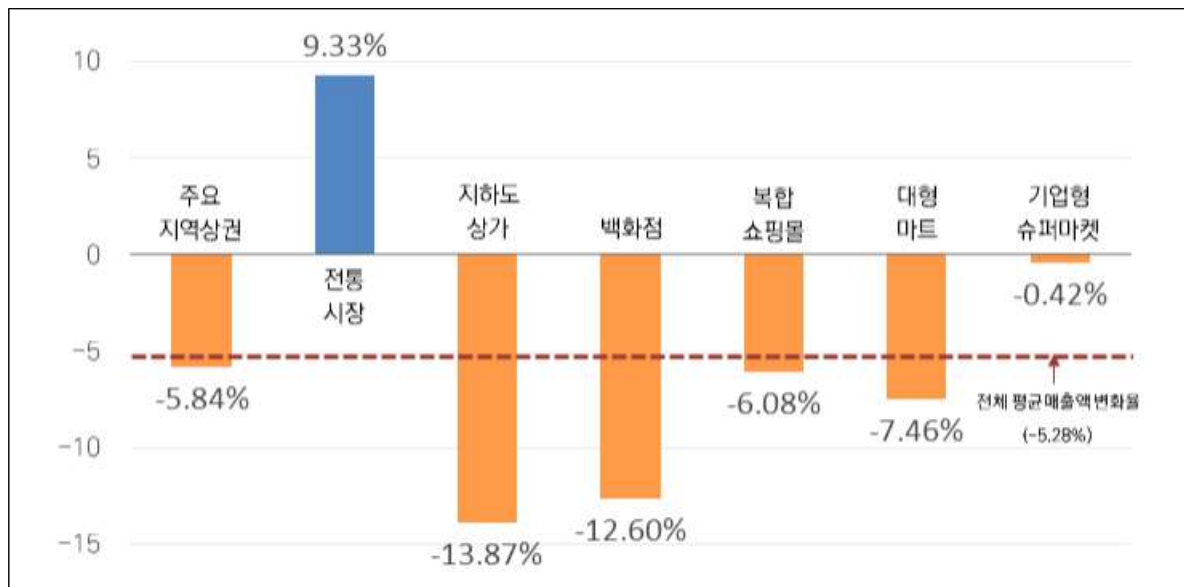
● 평균 매출액이 가장 큰 지역은 복합쇼핑몰 주변지역이고, 가장 작은 지역은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지역임

- 평균 매출액은 복합쇼핑몰 주변지역이 125억 9천만 원으로 가장 컸고, 백화점 주변지역 100억 원, 대형 마트 주변지역 85억 3천만 원, 지하도 상가 주변지역 39억 3천만 원임
- 지원금 사용액이 작은 지역은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지역 13억 5천만 원, 전통시장 주변지역 15억 원, 주요 지역 상권 주변지역 18억 6천만 원 순임

● 전통시장 주변지역만 평균 매출액이 증가

- 전통시장 주변지역의 평균 매출액은 직전년도 같은 달 대비 9.33% 증가
- 평균 매출액 감소 폭은 지하도 상가 주변지역이 -13.87%로 가장 컸으며, 백화점 주변지역 -12.60%, 대형 마트 주변지역 -7.46%, 복합쇼핑몰 주변지역 -6.08% 등의 순임

[그림 2] 상업공간별 평균 카드 매출액 변화율(2020년 5월, 직전년도 같은 달 대비)



5) 
$$\mu(A_j) = \frac{\sum_{i=1}^n x(A_j)}{n}$$

$\mu(A_j)$  = 상업공간별 평균매출액  
 $A_j$  = 상업공간의 유형  
 (주요지역 상권, 전통시장, 지하도 상가,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 마트, 기업형슈퍼마켓)  
 $x$  = 지역(집계구)에서 발생한 매출액,  $n$  = 상업공간이 입지한 지역(집계구)의 수

## 4 상업공간별 재난지원금 사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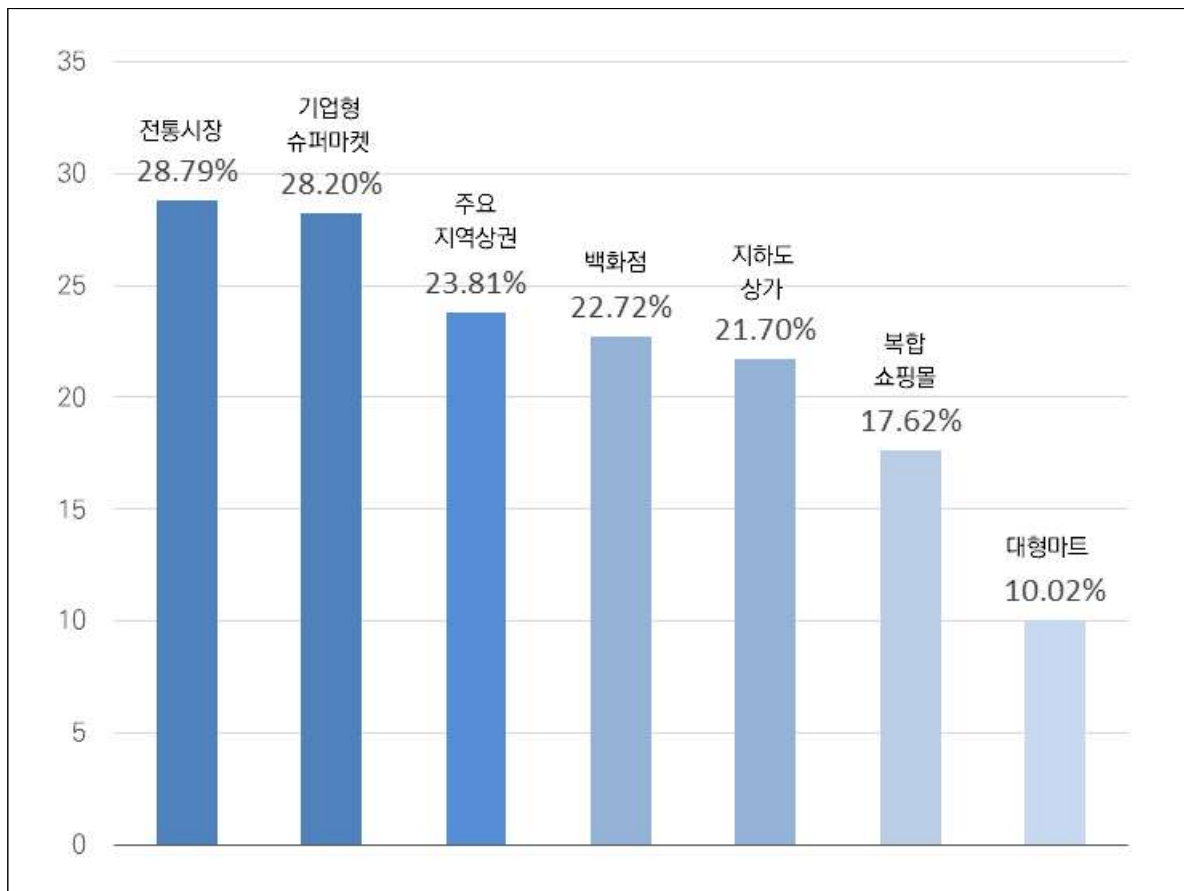
### ●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 주변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됨

- 지원금 평균사용액은 백화점 주변지역이 22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합쇼핑몰 주변지역이 22억 2천만 원, 대형 마트 주변지역과 지하도 상가 주변지역이 8억 5천만 원임

### ● 전통시장 주변지역과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지역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sup>6)</sup>

- 지원금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상업공간은 전통시장 주변 28.79%이고,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 28.20%, 주요 지역 상권 23.81%, 백화점 주변 22.72% 등의 순임
- 지원금 사용 비율이 낮은 공간은 대형 마트 주변 10.02%, 복합쇼핑몰 주변 17.62%임

[그림 3] 상업공간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비율(%)



6)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비율(%) = (상업공간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 평균 ÷ 상업공간별 매출액 평균) × 100

## 5 분석 결과 종합 및 정책제언

### ●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통시장 주변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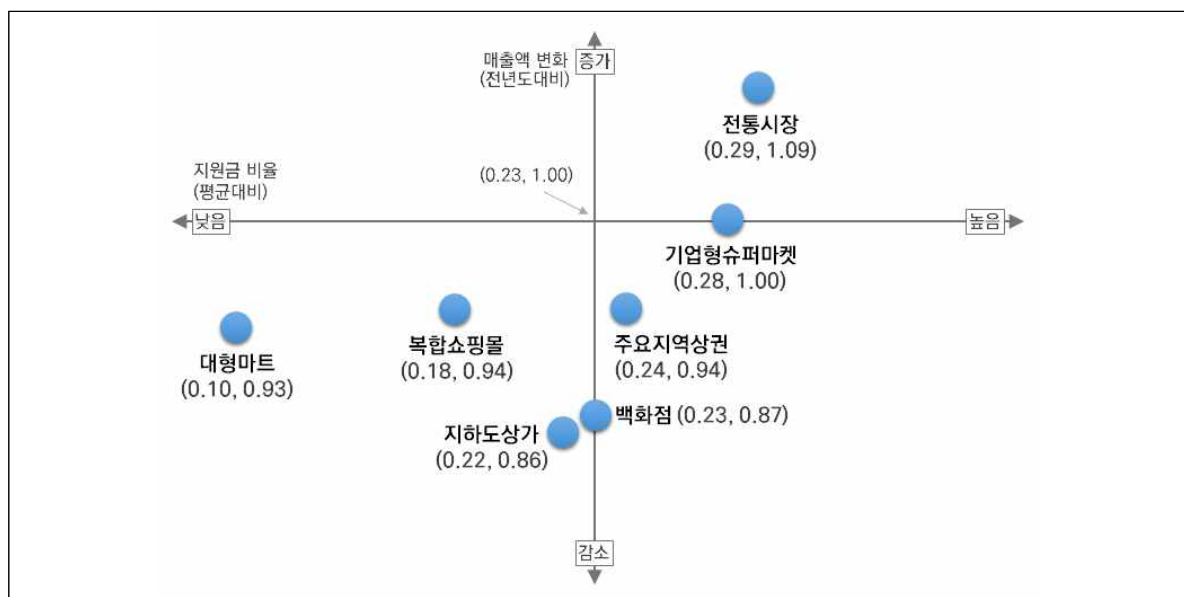
□ 지원금 지급정책의 혜택을 받은 상업공간은 ‘전통시장 주변지역 >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지역 > 주요 지역 상권 주변지역 > 복합쇼핑몰 주변지역 > 백화점 주변지역 > 대형 마트 주변지역 > 지하도 상가 주변지역’ 순임<sup>7)</sup>

- 전통시장 주변지역은 카드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지원금 사용 비율도 가장 높음
-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지역의 카드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지원금 사용 비율이 높아, 지원금이 매출액 유지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됨

### ●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여도가 낮은 지역은 ‘대형 마트 주변지역’, ‘지하도 상가 주변지역’임

- 대형 마트 주변 매출액은 평균보다 작고, 지원금 사용 비율도 가장 낮았음
- 지하도 상가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하였고, 지원금 사용 비율은 평균 수준임
  - 지하도 상가 주변지역은 전통시장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감소
  - 해당 기간의 언론 빅데이터 분석 결과, 5월 지하도 상가 매출이 많이 감소한 원인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관련됨(5월 확진자 동선에 부평지하도 상가가 포함 5월 6일, 5월 25일)

[그림 4] 상업공간별 지원금 비율 및 매출액 변화



7) '기여도'란 특정 요소가 전체의 변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개념임. 본 분석은 상업공간별 지원금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원금 사용 비율과 평균 매출액 변화 정도를 이용하여 단순 비교하였는데, 이것은 지원금이 상업공간의 매출액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상업공간의 특징(입지, 업종구성, 인접시설), 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의 영향으로 지원금의 영향(효과)이 달라지기 때문임

## ◆ 정책제언

### □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받지 못한 지하도 상가 활성화 정책 필요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시기와 맞물려 지원금의 사용이 매우 저조
- 지하도 상가는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코로나19에 위험이 높은 상업공간으로 강하게 인식되므로 전반적인 상가환경 개선과 방역체계 마련 필요
- 지하도 상가 활성화 계획 수립 필요

### □ 공간 빅데이터의 상시 수집·활용·공유체계 마련

-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특정 현상의 위치와 주변의 현황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다른 현황정보와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에 용이함<sup>8)</sup>
-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상시 수집체계 마련 필요. 감염병 등과 같은 사회재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공간 빅데이터 수집 및 공유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 본 분석은 인천시의 주요 상업공간 정보와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실태를 공간적으로 분석하였음. 이외에도 '유동인구'와 '배후인구', '상업공간별 업종 구성' 등 공간 기반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면, 추진정책의 효과 분석 등 시민 대상의 정책개발 연구에 폭넓게 활용 가능함

---

8) 통계적 분석방법은 전반적인 현황 파악에 용이하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음



## ▶ 참고문헌

### [정부정책]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 6. 1.).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등 신청 현황 (5월 31일 24시 기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 6. 11.). 긴급재난지원금 음식점·마트에서 많이 사용

### [웹사이트]

빅카인즈, <http://www.bigkinds.or.kr>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인** 이용식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www.ii.re.kr](http://www.ii.re.kr)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슈브리프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이슈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